

응답하라, 나의 꿈!

431프로젝트

고3 2018년 09월 생활과윤리
최고난도 및 유형

이지오답핏

www.i-ez.net | 02-571-8170

응답하라, 나의 수능 - 나를 알아주는 최적의 학습 시스템

킬/러/문/항/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생활과윤리 3번

이게 바로 핵심이야!

왜 틀렸지?

이것만은 기억하자!

문제

§ 세부단원정보 : 평화와 윤리 | 지구촌 윤리 | 해외 원조

001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하면 질서 정연한 사회란 그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고 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정의의 원칙을 자기 사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빈곤으로 인해 죽어갈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

- ① 원조 대상자의 국적은 원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
- ② 원조는 전 지구적 차원의 윤리적인 의무로 정당화될 수 없다.
- ③ 원조 대상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의 빈곤한 시민은 제외되어야 한다.
- ④ 원조는 인류의 공리 증진이 아닌 지구적 정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 ⑤ 원조의 최종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 출전 : 고3 2017년 수능 생활과윤리 18번

002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최대의 이익이 산출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풍요한 사회의 시민들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

을: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결정적 요인은 자원의 수준보다는 정치 문화이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해야 한다.

- ① 갑: 원조를 위해서 풍요한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갑: 풍요한 사회의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 ③ 을: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정의의 제2원칙에 따라 국가 간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
- ⑤ 갑, 을: 공리의 원리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 출전 : 고3 2016년 수능 생활과윤리 20번

003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정치 문화는 한 사회의 부와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 사회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유념하여 만민은 고통을 겪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한다.

을: 타인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치품에 돈을 쓰고 있다면, 확실히 우리는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보면, 갑은 ㉠원조의 목적을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상대적으로 빈곤하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을은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만이 원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해외 원조에서 ㉤갑은 사회의 정의를 을은 개인들의 복지를 중시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킬/러/문/항/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생활과윤리 5번

이게 바로 핵심이야!

왜 틀렸지?

이것만은 기억하자!

문제

§ 세부단원정보 : 생활과 윤리의 의의 | 다양한 접근 | 책임 윤리

004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상 대담>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과 같은 ‘윤리적 공백’의 시대에는 구원의 예언보다 불행의 예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기술 유토피아주의를 찬양하는 ‘희망의 원칙’이 아닌, 미리 사유된 위험 그 자체와 관련된 ‘공포의 원칙’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

<가상 대담>

리포터 :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사상가 :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을 가져야 합니다.

- ① 자연과의 상호 책임성을 토대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②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책임지는 것처럼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③ 자연에 대한 주인 의식을 토대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④ 과학의 무한한 진보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⑤ 행위의 직접적 영향의 한도 내에서만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출전 : 고3 2017년 수능 생활과윤리 14번

005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선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반성을 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지만, 악의 현존은 우리에게 인식을 강요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은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①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 ② 과학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 ③ 새로운 윤리학은 최고악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 ④ 새로운 윤리학은“A이면 B하라.”라는 형식의 명법만을 지향한다.
- ⑤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 책임도 중시해야 한다.

§ 출전 : 고3 2016년 06월 평가원 생활과윤리 3번

006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인류는 지구 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 ① 인간과 자연은 공존을 위해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가?
- ② 책임의 대상과 범위에 미래 세대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 ③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은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가?
- 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킬/러/문/항/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생활과윤리 10번

이게 바로 핵심이야!

왜 틀렸지?

이것만은 기억하자!

문제

§ 세부단원정보 : 사회정의 | 사회 정의 | 사형 제도

00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가)</p>	<p>갑 : 형벌은 위법 행위의 경중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에, 살인범은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이것은 정의가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p> <p>을 : 형벌과 보상으로 사회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이 정부의 직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형벌의 가치는 어떤 경우든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p>
<p>(나)</p>	

<보 기>

- ㄱ. A :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더라도 정당화 가능한가?
- ㄴ. B :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는 것인가?
- ㄷ. C : 형벌은 공리를 증진하기 때문에 형벌 그 자체는 선인가?
- ㄹ. C : 형벌은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려는 수단이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008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모든 형벌은 강도, 지속성, 보편성을 근거로 과도하지 않게 집행되어야 한다.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로 삼아 전체의 효용을 증진하는 것이다.</p> <p>을: 모든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가혹 행위로부터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p> <p>병: 모든 사람들에게 살인범의 끝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p>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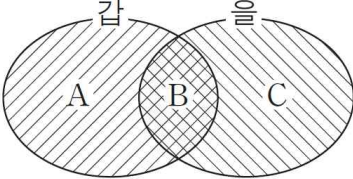
<보기>

- ㄱ. A: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살인범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하는가?
- ㄴ. B: 사형은 범죄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응보적 처벌인가?
- ㄷ. C: 사형은 살인죄에 대한 동등성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벌인가?
- ㄹ. D: 사형은 종신형에 비해 처벌의 사회적 효용이 낮은 형벌인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출전 : 고3 2015년 수능 생활과윤리 19번

00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언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형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p> <p>을: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범법자에게는 교정과 무력화로, 다른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div>

<p>————— <보 기> —————</p> <p>ㄱ. A: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p> <p>ㄴ. B: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p> <p>ㄷ. C: 형벌의 부과는 공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p> <p>ㄹ. C: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다.</p>
--

-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생활과윤리 12번

이게 바로 핵심이야!

왜 틀렸지?

이것만은 기억하자!

문제

§ 세부단원정보 : 과학·생태·정보 윤리 | 인간과 자연 | 인간/탈인간중심주의

0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 늙은 말이나 개와 같이 오랫동안 봉사한 동물들에게 감사의 정(情)을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p> <p>을 : 무당벌레와 진딧물의 관계와 같이 하나의 종(種)을 위한 선은 다른 종을 위한 선이 아닐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자신의 선을 가지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p>병 : 식용 송아지의 비참한 모습은 애처롭고 마음 아프게 한다.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삶의 주체인 동물들의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병만의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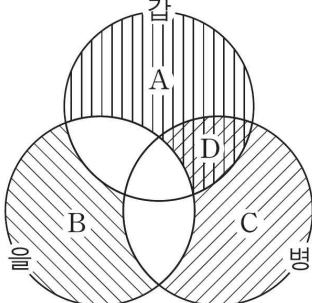
<p>ㄱ. A :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p> <p>ㄴ. B : 인간이 동물보다 본래적으로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p> <p>ㄷ. C :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비이성적인 개체도 존재한다.</p> <p>ㄹ. D :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p>

-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

유사문제

§ 출전 : 고3 2017년 수능 생활과윤리 11번

0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어떤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p> <p>을: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활동이 목표 지향적이라는 뜻으로,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항상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말이다.</p> <p>병: 인류는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인류의 역할은 동료 구성원과 대지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 <범례> —</p> <p>A : 갑만의 입장</p> <p>B : 을만의 입장</p> <p>C : 병만의 입장</p> <p>D :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div>

<보 기>

- ㄱ. A: 평등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모든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 ㄴ. B: 인간은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닌다.
- ㄷ. C: 개체주의적 관점을 지양하고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 ㄹ. D: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 속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01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고유의 선을 갖는다. 모든 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p>을: 우리는 지각, 기억, 믿음 등을 지닌 삶의 주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들의 가치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p> <p>병: 우리는 대지를 사랑과 존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지와 인간의 윤리적 관계는 대지에 대한 사랑, 존경, 감탄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 <범례> —</p> <p>A: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p> <p>B: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p>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p>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 <보기> —

<p>ㄱ.A: 개체론적 관점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p> <p>ㄴ.B: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더라도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대상이 아니다.</p> <p>ㄷ.C: 도덕적 행위 능력 유무가 도덕적 고려대상의 설정근거는 아니다.</p> <p>ㄹ.D: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p>

-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

킬/러/문/항/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생활과윤리 19번

이게 바로 핵심이야!

왜 틀렸지?

이것만은 기억하자!

문제

§ 세부단원정보 : 사회정의 | 인권 존중 | 준법, 시민 불복종

01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 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절차도 찾기 어렵다. 또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 줄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는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심각한 정도로 부정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고려하게 된다.

<보 기>

- ㄱ.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 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 ㄷ.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 항거하는 것이다.
- ㄹ.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출전 : 고3 2016년 수능 생활과윤리 8번

0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시민은 한 순간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감옥이다.

을: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원칙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보 기>

ㄱ. 갑: 개인은 법에 우선하여 양심과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ㄴ.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 행위이다.

ㄷ. 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일부의 부정의 한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ㄹ. 갑, 을: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일 필요는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출전 : 고3 2018년 06월 평가원 생활과윤리 16번

0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을 :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① 갑 : 시민 불복종은 다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

② 갑 : 법률과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판별 근거로 삼아야 한다.

③ 을 :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닌 경우가 있다.

④ 을 :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비폭력적·공개적 저항이다.

⑤ 갑, 을 : 시민 불복종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거부하는 수단이다.

NOTEPLY™

정답과 해설

응답하라. 나의 수능 - 나를 알아주는 최적의 학습 시스템

www.noteply.co.kr

1 정답 ①

해외 원조에 대한 싱어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싱어의 주장이다. 싱어는 롤스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며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고 본다. 싱어는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친소(親疏)에 관계없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싱어에게 원조 대상자의 국적은 원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② 싱어는 원조가 전 지구적 차원의 윤리적인 의무라고 본다.
- ③ 싱어에게 빈곤한 사람은 어느 사회에 소속되어 있느냐와 관계없이 원조의 대상이다.
- ④ 싱어에게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공리 증진이다.
- ⑤ 원조의 목적을 고통 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 개선에 두는 사상은 롤스이다.

2 정답: ③

싱어와 롤스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파악

정답 해설: 갑은 싱어이다. 싱어는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을은 롤스이다. 롤스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 ① 싱어는 풍요한 사회의 시민들은 고통 받는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싱어는 풍요한 사회의 시민도 고통을 받고 있다면 원조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롤스는 자신의 ‘정의론’에서 제시한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분배 정의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싱어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라고 하면서 공리의 원리를 해외 원조에 적용한다.

3 정답 ④

원조에 관한 롤스와 싱어 입장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갑은 원조에서 정치 문화 및 사회의 기본 구조를 강조하는 롤스이고, 을은 세계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원조를 해야 한다는 싱어이다. 싱어에 따르면 원조는 개인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고통 받은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② 롤스는 고통 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빈곤하더라도 더 이상의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③ 싱어는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⑤ 롤스는 해외 원조에서 사회 정의의 측면을, 싱어는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중시한다.

4 정답 ②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요나스의 주장이다. 요나스는 ‘공포의 원칙’의 우선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의 윤리를 주장한다. 요나스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책임지는 것과 같은 자연에 대한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 현세대에게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오답피하기]

- ① 요나스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일방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 ③ 요나스는 자연에 대한 주인 의식을 토대로 한 책임이 아닌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 ④ 요나스는 과학의 무한한 진보를 신뢰하는 태도가 기술 유토피아라는 신화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판한다.
- ⑤ 요나스는 행위의 직접적 영향만이 아니라 그 행위자면 미래에 끼치게 될 결과까지도 예측하여 자연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예견적 책임’을 강조한다.

5 정답: ④

요나스의 책임의 윤리 파악

정답 해설: 제시문은 요나스의 주장이다. 요나스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생태학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새로운 명법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대표적인 명법은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이다. 그런데 ‘A이면 B하라.’는 가언 명령이므로 새로운 윤리학이 지향하는 명법으로 옳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② 요나스는 과학 기술이 초래한 긍정적 영향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부정적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요나스는 새로운 윤리학이 가장 극단적인 공포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⑤ 요나스는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한 사전적 책임도 강조하였다

6 [정답] ①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요나스의 주장이다. 요나스는 인류가 지구상에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한다. 또한 그는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갖게 되며, 책임 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로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입장을 유추해 보면 인간과 자연은 공존을 위해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닌 인간만이 자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만이 책임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요나스는 책임의 대상과 범위에 미래 세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요나스는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요나스는 인간은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요나스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정답 ③

형벌에 대한 칸트와 벤담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ㄴ. 칸트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살인범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전제한다고 본다.

ㄷ. 벤담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벤담은 형벌의 목적이 범죄 억지를 통한 사회적 이익의 증진이라고 본다.

[오답피하기]

ㄱ. 벤담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벤담은 형벌이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더라도 범죄를 억지한다면 정당하다고 본다.

ㄴ. 벤담은 형벌 그 자체는 고통이므로 악이라고 본다.

8 정답 ③

사형에 관한 벤담, 칸트, 베카리아 입장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형벌의 목적을 전체의 효용 증진에 두는 벤담이고, 을은 사형을 살인범의 인격 존중으로 보는 칸트이며, 병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 가능성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를 중시하는 베카리아이다. C에는 칸트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사형을 살인죄에 대한 동등성의 원리에서 찾는 것은 칸트의 응보적 정의관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C). D에는 베카리아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형벌의 사회적 효용을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베카리아의 주장이므로 적절하다(ㄷ).

[오답피하기]

ㄱ. 벤담은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형벌을 주장하기 때문에 A에 들어갈 옳은 질문이 아니다.

ㄴ. 칸트는 형벌의 근거를 국가나 사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범죄를 저질렀다는 바로 그것에만 두어야 한다는 응보적 정의관을 주장하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옳은 질문이 아니다.

9 정답 ②

칸트와 벤담의 사형 제도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ㄱ. 칸트는 사형은 살인범을 잔혹한 형벌에서 구제하며, 자율적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ㄷ. 벤담은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이라는 공리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답피하기] ㄴ. 칸트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ㄷ. 벤담에 따르면 형벌은 고통을 가져다주므로 그 자체로는 악이다.

10 정답 ③

환경 윤리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테일러, 병은 레건이다.

ㄷ. 테일러는 비이성적인 생명체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레건은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은 비이성적이지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ㄷ.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사상가는 전체론적 입장인 레오폴드이다.

[오답피하기]

ㄱ. 칸트, 테일러, 레건의 공통된 입장이다.

ㄴ. 레건, 테일러의 공통된 입장이다.

11 정답: ②

싱어, 테일러, 레오폴드의 환경 윤리 입장 비교

정답 해설: 갑은 싱어, 을은 테일러, 병은 레오폴드이다. 테일러의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인간이 다른 생명제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함을 강조한다.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싱어나 레오폴드가 주장하지 않는 것이므로, 테일러만의 주장에 해당한다(ㄴ). 레오폴드는 싱어와 테일러와는 달리 개별 생명체의 복지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 전체를 중시하는 생태 중심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개체주의적 관점을 지양하고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레오폴드만의 주장에 해당한다(ㄷ).

[오답피하기]

ㄱ. 싱어의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모든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강조하

지는 않는다.

ㄹ. 쾌고 감수 능력 을 지닌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 속한다는 것은 싱어의 주장이다. 그러나 테일러와 레오폴드도 동의 할 주장이므로 오답이다.

12 정답 ㉔

생명 중심, 동물 중심, 생태 중심 윤리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값은 테일러이고, 을은 레건이며, 병은 레오폴드이다.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적 입장을 지니고 있고,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 테일러와 레건은 개체론적 관점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며(ㄱ), 세 사상가는 모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ㄹ).

[오답피하기]

ㄴ. 레오폴드는 생태계의 안정성, 온전함,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는 무생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ㄷ. 도덕적 고려의 설정 근거가 도덕적 행위 능력의 유무에 있지 않다는 것은 세 사상가의 공통된 입장이다.

13 정답 ㉑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사상은 롤스이다.

ㄱ. 롤스는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발생된다고 본다.

ㄴ. 롤스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경우, 그 사회의 구성원은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ㄷ. 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 대한 항거가 아니라 부정의한 법에 대한 항거이다.

ㄹ. 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기고 있는 부정의한 법이다.

14 정답 ㉑

소로와 롤스의 시민 불복종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값은 양심과 정의에 기초해 시민 불복종을 주장하는 소로이고 (ㄱ), 을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보는 롤스이다. 롤스에 따르면 부정의한 모든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아니다(ㄷ).

[오답피하기]

ㄴ.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의 법에 대한 불복종이다.

ㄹ.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15 정답 ㉓

시민 불복종에 대한 소로와 롤스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값은 소로, 을은 롤스이다. 롤스는 양심적 거부 중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시민 불복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㉑ 소로는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다고 본다.

㉒ 소로는 불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을 주장하므로 법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판별 기준은 될 수 없다.

㉔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㉕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다.